


<p>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p>  <p>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p>	<p>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p> <h1>가 정 통 신 문</h1> <p>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p>	<p>제 2021 - 40호</p> <p>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p>
<p>제 목 : 2021년 「제131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계기 교육 자료 안내</p>		

1. 노동절의 유래: 1800년대 중반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씩 장시간 일해야 했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강제로 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은 한 달 방세도 내기 어려운 수준이었기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66년에는 전 세계의 노동운동 단체가 모인 「인터내셔널」이 결성하여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였고 1884년 10월에 열린 미국-캐나다 노동조합연맹(FOTLU) 회의에서도 1886년 5월 1일까지 8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1886년 5월 1일에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1889년에는 세계 20여 개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제2 인터내셔널」을 결성하여 “모든 나라, 모든 도시의 노동자가 동시에,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 시위를 개최하는데, 미국노동총연맹이 (파업을) 결의한 1890년 5월 1일을 국제 시위의 날로 삼고, 각국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시위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여 이날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수십 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집회가 열립니다. 이에 「제2 인터내셔널」은 5월 1일을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그 정신을 기리며 하루 8시간 노동제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중요한 과제를 노동자 공통의 요구로 삼아 전 세계에서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 한국의 노동절: 조선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 주관 하에 이루어져 5월 1일 서울에서 노동자들이 휴업하고 장충단에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탄압 아래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운동은 점점 일제의 지배에 맞서는 정치적 성격을 띄어갔고 1931년부터 1935년에는 노동운동 활동가 1,759명이 검거되었지만 매년 노동절에는 전국 각 곳에서 ‘일제 타도’를 외치며 노동자와 민중들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첫 노동절 행사인 1946년 5월 1일에는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 주도로 서울운동장에 20만 명이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은 1948년에 이를 불법화 시켰으며 1957년에는 노동절의 날짜를 3월 10일로 옮겨버리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꿔버립니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 한다’는 뜻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순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근로자’란 말은 일제의 잔재 중 하나입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을 통해서 노동절은 정부가 정해놓은 3월 10일이 아닌, 매년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기념하며 그 해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발언하는 자리로 삼았으며 결국 1994년에 이르러 정부도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절은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한 채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세계노동절입니다. 달력에 표시된 ‘근로자의 날’보다는 ‘노동절’이란 명칭을 쓰는 것은 어떨까요?

3. 올해는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올해로 131주년 세계 노동절의 해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전처럼 한자리에 노동자들이 모이는 행사 대신 노동절의 의미를 기리는 다양한 방식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 1일에는 131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외쳤던 이들을 떠올리며, 지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2021. 04. 28.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